

# 2027년 기아차 = 전기차

기아자동차가 오는 2027년까지 전용 전기차 모델 7개를 출시하는 등 전기차 사업 체제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16일 기아차에 따르면 송호성 사장은 최근 화성 공장을 방문해 향후 출시될 전용 전기차 모델 라인업의 스케치 이미지를 공개(사진)하고 기아차의 글로벌 전기차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송 사장은 "기아차는 2011년 국내 최초의 양산형 순수 전기차 레이 EV를 선보인 이래, 전 세계 시장을 무대로 1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해 왔다"며 "전기차 중심의 사업 전략을 기반으로 오는 2029년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11개의 전기차

사업체제 전환 박차  
내년 첫 전용 모델 'CV' 등  
2027년까지 7개 출시  
"9년 후 글로벌 25% 점유"

라인업을 구축해 국내외 북미, 유럽 등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을 2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스케치 이미지로 공개한 7개 전용 전기차 모델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출시하는 'CV(프로젝트명)'는 기아차가 축적한 기술력과 첨단 전기차 신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최초의 전용 전기차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의 전기차 전용 서비스 인프라 구축 확대에도 나서 국내 84곳인 전국 전기차 전용 서비스 작업장을 2030년까지 1200곳으로 확대한다. 해외는 연내 600여개, 오는 2023년까지 2000여개의 전기차 전용 작업장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내 시장의 충전 인프라 보급을 위해 전국 판매 지점과 대리점, 서비스센터 등 자체 거점을 활용해 2030년까지 1500기에 달하는 충전기를 보급, 그룹 차원에서 전국 12개 고속도로와 도심에 내년까지 120기의 초고속 충전기도 구축한다. 또 제휴 협력에도 힘써 현재 27기인 협력 충전 인프라를 내년까지 214기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은행 "코로나 의료진 힘내세요"

전남 의료진에 5천만원 상당 후원꾸러미 1천 상자...농산물·건강식품 등 구성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16일 전남 코로나19 의료진에 감사와 응원을 전하기 위해 '응원꾸러미' 1000상자를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전달로, 송종욱 행장과 임직원 40여 명이 직접 만들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송 행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홍석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 등이 참석했다.

총 5000만원 상당인 응원꾸러미는 총 17종 물품으로 구성됐다.

나주·장흥 등지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홍삼·비타민 건강식품, 간식, 즉석식품, 마스크팩, 핸드크림 등이 들어갔다.

이들 물품은 전남지역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17일에는 응원꾸러미 1000상자를 추가 제작해 광주시에도 전달한다.

송 행장은 "코로나19 위기에 맞서 지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의료진에 감사"라며 "광주은행은 이익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최우선시하는 전남·광주 대표은행으로서 다방면의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송종욱(오른쪽) 행장이 16일 전남도에 코로나19 의료진을 위한 '응원꾸러미' 1000상자를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김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친 의료진들에게 응원꾸러미가 응원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광주시와 전남도에 마스크 각각 3만개를 지원하고, 긴급 구호성금 각 4억원, 3억원을 전달했다.

목포·순천·여수·나주에도 각 1000만원

을 전했으며, 지난 달 지역 수재민을 위한 긴급 구호성금 5000만원, 전남 800상자를 전달하기도 했다.

또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전남신용보증재단에 각각 10억원, 기술보증기금에 5억원 출연해 지역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직원 꿈 키워주고 세계 女心 잡고 "사업은 사람을 남기는 일입니다"

기능성 속옷 독보적 브랜드 자리매김 ㈜아로마라이프 이학재 회장

"사업은 돈만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지역 향토기업으로 2008년 설립 이후 국내 기능성 속옷 시장의 독보적인 브랜드로 자리를 굳힌 ㈜아로마라이프 이학재 회장은 "속옷은 단순한 이너웨어 개념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내 몸을 위한 파운데이션(화장품)이자 '몸의 일부'라는 철학으로 최고의 소재와 차별화된 디자인, 기능 등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로마라이프는 '여성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한 제품연구와 개발에 매진해 왔다. 피부에 직접 닿는 속옷이라는 점을 고려해 천연섬유보다 신축성이 7-8배 뛰어난 일본 도레이사의 인조탄성섬유인 라이크라 원단을 수입해 한국인의 체형에 맞게 제작하고 있다.

속옷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안함을 극대화한 3단 일체형 및 4단 일체형(브래지어·슈트·거름·레깅스) 보정속옷을 개발해 국내는 물론 일본, 미국, 중국에서도 특허를 받는 등 해외 각국에 디자인 특허와 국내 수십 종의 디자인 및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각종 기술인증을 비롯해 자체적으로 디자인개발을 운영하는 등 여성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한 제품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이 회장은 "현재까지 80여종의 제품과 3000여 가지의 품목을 갖추고 국내는 물론 미국, 중국 등 세계시장까지 제



국내의 특허·상표권 보유  
"직원이 최고" 경영 철학  
부인과 '아너 소사이어티'  
"세계적 명품회사 될 것"

품을 출시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기능성 보정속옷 명품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아로마라이프의 강점은 직원들이 행복을 느끼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꿈을 이뤄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춘 회사라는 데 있다. 10년을 화장품 회사의 직장인으로, 이후 개인사업가로 활동

하다가 쓰러린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회장은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을 '최고'로 여기고 있다.

영업직 직원들이 일한 만큼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바꾸고, 대리점 직원, 임·직원 자녀들에게 장학금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경영철학이 아로마라이프가 단기간 국내 기능성 속옷 업계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다.

또 이 회장은 고객과 지역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회환원에도 적극적으로 기여 유망하다. 이 회장은 부인 이광은(주메르시 대표)과 함께 1억원 이상 고액 개인 기부자들의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Honor Society) 부부회원이다.

이런 '나눔정신'은 직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직원 모두가 매년 연말 연탄과 쌀을 배달하고, 감정을 담가 이웃들에게 건네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체계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에 '아로마라이프장학회'와 '아로마라이프선교회'를 결성하는 등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학재 회장은 "아로마라이프라는 이름처럼 향기롭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고흥·보성·장흥 인구유출 심각...지난해 1500명

20년만에 인구 32% 감소

고흥·보성·장흥지역을 아우르는 득량만(得梁灣)권에서 지난해 1500명의 인구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6일 발표한 '통계로 본 2000년 이후 득량만권 인구변화'에 따르면 지난해 득량만권에서는 고흥 114명, 보성 933명, 장흥 457명 등 총 1504명이 순유출됐다.

이는 20년 전(-4703명) 순유출 인구에 비해 68%(3200명) 정도 축소된 규모다. 지난 2000년 고흥에서는 1204명, 보성 1502명, 장흥 1997명이 순유출됐다.

3개 군 인구는 20년 만에 32% 줄었다. 고흥은 2000년 10만1000명에서 2019년 말 6만5000명으로 35.7%(3만6000

명) 감소했다. 보성은 6만1000명에서 4만1000명으로 32.5%, 장흥은 5만3000명에서 3만9000명으로 27.8% 격감했다.

같은 기간 전남 도내 인구가 213만1000명에서 186만9000명으로 12.3%에 준 것과 비교하면 거의 3배 가량 많은 수준이다.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20년 새 고흥 3만4000명(-49.2%), 보성 1만8000명(-44.3%), 장흥 1만4000명(-37.5%) 등 절반 가까이 줄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을 보면 고흥은

10명 중 4명 꼴인 39.8%에 달했으며 보성 37.3%, 장흥 33.0%로 30%를 크게 웃돌았다. 전국 노인 인구 비율은 15.5%다.

고령화 영향으로 1인 가구 비율도 높아져 고흥(38.6%), 보성(38.4%), 장흥(37.2%) 모두 10가구 중 4가구 가까이가 홀로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20년 전과 비교해 농가 수도 고흥은 6394가구(-35.5%), 보성 3940가구(-36.5%), 장흥은 4988가구(-50.9%) 줄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35.92 (-7.66)	↑ 금리(국고채 3년) 0.910 (+0.003)
↓ 코스닥 896.28 (-3.18)	↓ 환율(USD) 1176.10 (-2.90)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